

글로벌 OTT 위협하는 韓 OTT, 정부지원 업고 경쟁력 강화

쿠팡플레이, 역대 최대치 기록
스포츠 분야 콘텐츠 범위 넓혀
왓차, 성인 서비스로 돌파구 마련

OTT 업계(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정부가 국내 OTT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쿠팡플레이의 사용자 수가 600만명을 돌파하면서 글로벌 OTT들을 위협하고 있어서다. 다만, 왓차가 성인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OTT업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쿠팡플레이 사용자 '역대 최대치'... 정부는 국산 OTT 전폭 지원

17일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 8월 쿠팡플레이 앱 사용자 수는 634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조사에서 단일 OTT 사용자 수가 600만명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쿠팡플레이는 지난해 8월 402만 명에서 올해 8월 634만 명으로 232만 명 증가했다. 이어 디즈니플러스가 103만 명, 티빙이 96만 명, 넷플릭스가 35만 명, 웨이브가 4만 명 늘었다.



지난 12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열린 제16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뉴시스

쿠팡플레이의 성장 배경은 스포츠 분야에 적극 투자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쿠팡플레이는 이번 시즌 스페인 라리가, 프랑스 리그앙까지 독점 생중계를 진행해 해외 축구 콘텐츠의 범위를 넓히고 NFL(미국 내셔널 풋볼 리그) 등 스포츠 분야에 적극 투자했다.

여기에 정부도 글로벌 OTT기업들에 맞설 한국형 넷플릭스 육성에 나선다고 밝히면서, 국내 OTT들의 경쟁력 확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 16차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에서 'AI와 디지털 기반의 미래 미디어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한 맞춤형 전략으로,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와의 경쟁 속에서 토종 OTT 등 국내 미디어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취지로 마련됐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OTT 기획, 제작, 마케팅, 유통 등에 이르는 단계별로 AI 접목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글로벌 OTT들이 가장 프로덕션 스

튜디오에서 만달로리안을 제작한 것과 같이 국내 기업도 AI 기반 디지털 전환을 통해 품질은 향상하고 비용은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미디어 분야 기술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는다.

현재 넷플릭스의 정보통신(ICT) 분야 보유 인력은 3554명이지만 국내 OTT 기업인 티빙이 보유한 ICT 인력은 71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또 국내 콘텐츠 기업의 기술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3년간 약 1500명 규모의 미디어 분야 AI·디지털 전문 기술인재를 양성하는 데 지원키로 했다.

◆“쿠팡플레이 사용자, 넷플릭스 ‘절반’”

다만, 현재까지 글로벌 OTT기업인 넷플릭스가 독주하고 있다. 넷플릭스의 8월 사용자 수(MAU)는 1223만명이었다. 2위인 쿠팡플레이 사용자 수는 634만명으로 절반 수준이다.

여기에 왓차도 성인 서비스를 도입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전망이다. 왓차는 성인물 서비스 도입을 위해 일본 현지 업체들과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왓차는 일부 사용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일부 관

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구독을 해지했다'는 인증까지 하면서 보이콧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계는 국내 OTT들의 저렴한 구독료와 다양한 콘텐츠 도입이 경쟁력이 라고 분석한다.

최근 글로벌 OTT들은 구독료 인상 기조를 보이고 있다. 디즈니플러스도 11월부터 새 구독 모델을 적용하기로 한 데 이어 프리미엄 요금제를 도입할 전망이다. 넷플릭스도 요금은 올리지 않았지만 베이스 멤버십의 신규 가입을 막았다. 반면, 국내 OTT는 회사가 주도적으로 구독료를 올린 적은 없다.

최용현 KB증권 연구원은 "쿠팡플레이 이용자 수는 지난 5월부터 가파른 증가세"라며 "2위 자리를 놓고 티빙과 쿠팡플레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드라마, 영화 외 다른 콘텐츠를 찾는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전략이 가입자 증가를 이끈 것"이라고 분석했다.

쿠팡플레이 관계자도 "최근 콘텐츠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스포츠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공한 것이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차세대 친환경 선박 시장 선점 '가속화'

정기선 HD현대 사장

친환경 컨테이너선 '로라' 명명식 참석
메탄올 연료 사용, 첫 컨테이너 운반선

정기선 HD현대 사장이 세계 최초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명명식 현장에 참석하는 등 친환경 선박 시장 선점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HD현대는 정기선 사장이 최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2100TEU급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 운반선 '로라 머스크호'의 명명식에 참석했다고 17일 밝혔다.

현대미포조선이 건조한 이 선박은 세계적 해운그룹 'AP몰러-머스크(이하 머스크)'가 HD현대에 발주한 19척의 메탄올 추진선 중 첫 번째로, 메탄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첫 번째 컨테이너 운반선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메탄올은 LNG에 이어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선박 연료다. 앞서 머스크는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 첫 단계로 메탄올 추진선의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로라 머스크호는 지난 7월 울산 현대미포조선에서 출발해 약 2개월, 총 2만



정기선 HD현대 사장(오른쪽 첫번째), 로버트 머스크 우글라 머스크 의장(오른쪽 두번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오른쪽 네번째)이 13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로라 머스크호' 명명식이 끝난 뒤 선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500km의 항해 끝에 13일 덴마크 코펜하겐에 도착했다. 머스크가 '해운의 새 시대'를 연다는 의미를 담아 이번 명명식을 본사가 있는 곳에서 개최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기선 사장도 명명식 참석을 위해 코펜하겐으로 이동했다. 명명식에는 정기선 사장 외 선주사인 로버트 머스크 우글라 머스크 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 등이 참석, 로라 머스크호의 명명을 축하했다.

선박의 이름은 창업주의 아버지 피터 몰러가 구입했던 첫 번째 증기선 '로라

호'의 이름을 따 지었다. 선수와 선체에 '제로(탄소중립)로 가는 길(All the Way to Zero)'이라는 슬로건을 새겼다. 머스크는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선박이 코펜하겐에 입항하는 모습과 명명식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며 세계 첫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의 성공적인 출발을 전 세계에 알렸다.

정기선 사장은 최근 글로벌 선사와의 접점을 넓히고 국제 전시회 등에도 연이어 참석하는 등 조선-해운 시장의 친환경 신기술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보폭을 넓히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LGU+, 전국 적십자사에 'EV충전기' 구축

볼트업 나눔 캠페인 실시

LG유플러스가 전기차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전기차 충전 서비스 '볼트업(Volt-up)' 나눔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전국 적십자사 지사와 혈액원, 병원 등 12곳에 볼트업 충전기 30기를 설치한다.

볼트업은 ▲LG전자·LS일렉트릭 등 기술력이 입증된 충전기 제조사들의 고품질 전기차 충전기 ▲충전 예약·완충 알림 발송 등이 가능한 앱 플랫폼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관제시스템 및 상담센터로 구성된 서비스다.

이를 통해 LG유플러스는 적십자사 소속 기관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에 협조한다. 충전기가 설치된 전국 적십자사 지사와 병원을 방문하는 사람은 누구나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양사는 적십자사 네트워크를 활용해 볼트업 충전기 홍보 활동에 나서며, 적십자사 기후변화 대응 사업 활동에 동참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한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양사는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오른쪽)와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이 협약식을 체결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시간 여려 가지 시도를 했고 많은 성과를 내왔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업무용 차량의 전기차 전환을 추진 중인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전기차 충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LG유플러스의 볼트업 충전기를 보급하고, 앞으로 적십자사에서 추진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LG CNS, 로봇 통합운영 플랫폼 사업 속도

XYZ로보틱스와 맞손

DX(디지털전환) 전문기업 LG CNS가 로봇 통합운영 플랫폼 사업을 강화한다. LG CNS는 최근 마곡 LG CNS 본사에서 인공지능(AI)기반 로봇 솔루션 기업 'XYZ로보틱스'와 국내 물류센터

의 로봇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XYZ로보틱스는 로봇의 눈에 해당하는 3D비전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로봇의 손에 해당하는 그리퍼(Gripper)를 설계, 제작하는 역량도 뛰어나다. 이러한 로봇 솔루션

을 기반으로 ▲물류센터 입고를 위해 다양한 상품을 집어서 화물운반대(팔레트)에 쌓는 '팔레타이징(Palletizing)' 로봇 ▲화물운반대에 적재된 상품을 컨베이어 벨트 등 다른 장소로 옮겨주는 '디팔레타이징(Depalletizing)' 로봇 ▲포장과 분류 등을 위해 개별 상품을 집는 '피스 피킹(Piece Picking)' 로봇을 물류현장에 적용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김서현 기자

KT, 추석 선물 장보기 등 혜택·상품 추가

KT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자사 멤버십을 통한 할인 혜택을 강화했다고 17일 밝혔다.

KT는 매달 새로운 제휴 혜택을 선보이는 '달.달.혜택'과 멤버십 커머스 '마들랜'에 추석 선물 장보기와 영화 예매권 할인 등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다양한 혜택과 상품들을 추가했다.

KT 멤버십 앱에서 이용 가능한 커머스 '마들랜'에서는 ▲정관장 ▲한우선물세트 ▲에디션 덴마크 TEA 세트 등의 추석 선물들을 멤버십 포인트 사용 시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구남영 기자